

# 응급실 출입 보호자 환자 당 1명으로 제한

##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지원팀 구성 의무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 당 1명으로 제한됐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를 환자 당 1명으로 제한했다. 단 소아나 장애인 환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가능하다.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은 보호자로서 출입이 불가하다.

의료기관은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고 1년 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응급실 과밀화 완화를 위해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및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난 혹은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및 최

선의 의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36곳에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조직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법령을 개정해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했다”면서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릿 배포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 간협-중소병원간호사회 간담회

###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등 현안 논의

대한간호협회와 중소병원간호사회는 정책간담회를 12월 8일 갖고 간호현안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중소병원간호사회 김영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중소병원 간호부서장들이 참석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문제가 간호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라면서 “특히 중소병원과 지방의 경우 고충이 더욱 심각하고 간호부서장님들의 애로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간호협회가 ‘2017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밝힌 ‘15대 중점과제’와 간호 관련 법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간호부서장들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교육, 대학병원 대기 간호사, 직장어린이집 등의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애 중소병원간호사회장은 “대한간호협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중소병원과 간호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풀어나가자”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인사 경기도 시흥시보건소 박명희 소장

경기도 시흥시보건소 소장에 박명희 시흥시 복지정책과장이 임명됐다.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보건소장을 맡게 됐다. 11월 27일자.

박명희 소장은 1986년 수성대(구 신일전문대)를 졸업했다. 서울신학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인제대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군위군보건소, 시흥시보건소, 정왕보건지소 등을 거쳐 시흥시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장, 시흥시 주민생활과장 및 복지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건강도시 정책을 위



해 애쓴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박명희 소장은 “우선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며, 여성공직자로서 어깨가 무겁지만 모범이 되고 싶다”면서 “직원들과 소통하며 즐겁게 직무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12월 현재 간호사 출신 보건소장은 박명희 소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이다.

주혜진 기자 hjoo@

## ‘중독바로알기 체크힐미’ 앱 개발

### 손쉽게 알코올·마약류 중독 조기진단 및 예방

술과 마약 중독 여부를 스마트폰 앱 또는 인터넷 웹을 통해 언제 어디서 손쉽게 진단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 연구과제인 ‘알코올·마약류 중독진단평가시스템 개발’ 연구과제의 결과물이다. 알코올·마약류 중독의 진단·예방·치료·재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국립부곡병원과 계명대 약학대학, 탐네트가 공동 연구했다.

체크힐미 앱과 웹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중독 여부를 진단하고 급증대응을 위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치료와 재활, 감람 역할을 위한 치료 영상과 강의, 전문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 있



다. 중독자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치유공간도 마련돼 있다. 일반인들도 절주와 절연 등 예방 및 조기 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방 등에 도움

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웹사이트(www.checkmehealme.com)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책임연구자인 최희경 국립부곡병원 중독진단과장은 “그동안 알코올·마약류의 중독 여부를 쉽고 간단하게 인지하고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치료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중독자와 가족, 일반인 등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크힐미’가 널리 보급돼 중독 예방 및 조기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 의과-한의과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실시

###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45개 기관 지정

45개 의료기관에서 의과-한의과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했으며, 11월 27일부터 1년간 표준협진절차에 따라 의과-한의과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단계 시범사업은 국공립병원 8곳과 민간병원 37곳 등 총 45개 기관에서 실시된다.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13개 기관에서 실시했던 1단계 시범사업 결과 민간병원의 참여기회 제공 및 협진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 등이 있어 기관수를 늘렸다.

시범사업은 의-한 간 협진을 활성화시키고, 표준협진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해 7월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2단계 시범사업의 표준협진모형은 시범기관의 경우 기관별 협진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구비하고 협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협진 의사 및 한의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표준협진회의·회신지를 작성한다.

환자는 협진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협진을 받는다.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이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이다. 대상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으로 한정한다. 협진 대상 질환으로는 다빈도,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을 선정했다.

협진 수가의 경우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시범기관에서 협진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범기간 동안 협진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다.

최초 협진 시 일차협진진료와 이후 경과관찰 시 지속협진진료료가 발생하며, 일차협진진료료는 1회에 1만5000원~1만7000원, 지속협진진료료는 1회에 1만 1000원~1만2000원 수준으로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또한 같은 날 동일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동시 진료 시 협진 후 행행위 급여 적용은 2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 유지된다.

주혜진 기자 hjoo@

##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 발간

### 감정노동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담은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이 개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폭언·폭력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을 개발했다.

핸드북에는 감정노동의 개념 및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필요성,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 기업별 우수사례 등이 포함됐다. 고객에 의한 폭력 발생 시 대응조치와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이 담겼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감정노동 수준과 작업장 폭력 발생의 위험수준을 평가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평가표도 수록됐다.

핸드북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핸드북 보급을 위해 정부·공공기관 및 감정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방문지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수정 기자 sjchoi@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과정 공모전

### 국립정신건강센터 간호과 ‘최우수상’ 수상

국립정신건강센터 간호과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주최한 ‘201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과정 기획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최영현)은 교육당사자와 현업종사자들이 교육기획에 참여한 수요자 맞춤형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7편의 교육과정 기획안을 선정해 시상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간호과(과장 김은주)는 ‘경력단계별 정신간호 실무 핵심역량강화 교육훈련’ 기획안을 개발해 보건의료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교육과정 개발책임자는 고자인 간호교육팀장이 맡았으며, 자문위원인 최윤정 중앙대 직속자간



호대학 교수가 공동개발했다.

5개 국립정신병원 간호사 전수 대상으로 조사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핵심역량 9가지를 도출했다.

이에 근거해 정신간호사 경력 단계를 3단계로 나눠 교육과정을 구성했으며, 전국의 정신간호사 핵심역량강화 교육과정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한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이번에 수상한 기획안을 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좋은 과정으로 발전시켜 내년 교육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

<b>간호사신문</b>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체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호사신문 (02) 2260-2571 FAX (02) 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nurses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산 하 단 체	
서울시 (02) 853-6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별원간호사회 (02) 2261-1711	보건의료사회 (02) 525-7318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09-6348	보건진료소협회 (02) 2266-7677	보건간호사회 (02) 527-3390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마취간호사회 (010-3103-0748)	보통심리간호사회 (02) 2263-1959
인천시 (032) 441-2925	전라남도 (061) 277-2292	산업간호사회 (02) 716-9030	가정간호사회 (02) 2267-5688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정신간호사회 (02) 425-1271	노인간호사회 (031) 750-5080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62-6006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경기도 (031) 252-0351	군진 (042) 878-4590		
강원도 (033) 263-6417			

### 2017년 온라인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 4차 재공고

대한간호협회는 2017년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팀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제	논, 위, 요의 건강문제와 간호	혈액·조혈기계의 건강문제와 간호
	간, 담도, 췌장의 내·외과적 치료와 간호	

개발비: 8시간 기준 3,000만원 (VAT 포함)

※ 주제별 단일 응모팀 접수 시 해당 팀은 유찰 처리함

- 참가방법: 개발자는 여러 주제에 대해 중복 지원이 불가함
- 개발책임자 신청자격
  - 1) 간호계: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한함
    - 간호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 의료기관 소속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 (팀장급 이상)
  - 2) 비간호계(의료인): 간호계 1인이 공동개발책임자로 구성되어야 함
    - 의과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 제출서류: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신청서, 자기점검표, 최종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신청마감: 2017년 12월 18일(월), 이메일 도착분(서명날인 기재)
- 제출처: eduson@koreanurse.or.kr(02-2206-1913)

※ 자세한 사항은 KNA에듀센터 홈페이지(edu.kna.or.kr) 참고

## 보건교사 합격의 매뉴얼

### 1:1 전화 학습 컨설팅 진행중

합격을 위한 선택 2018! 확신 2019!

## 김기영보건교사

- 2019학년도 전공보건 임용 합격을 위한 학습 2단계
  - 1단계: 2018 기출 문제 해설 특강 및 합격 전략 설명회 보기
  - 2단계: 2018년 1-2월 강의 및 연간 패키지 수강하기
- 1-2월 강의 사전 예약 할인 기간
  - 2017년 12월 22일(금) 10시 ~ 30일(토) 13시

‘2017년 수강생 수석·차석 최다 합격!’

- 수석 / 차석 / 3등 11명
- 60점 이상 고득점자 22명
- 부산, 경기, 대전, 충남, 충북 최다 합격

2018/2019학년도 보건교사 임용대비

## 6인 6색 교육학논술

- 2018학년도 기술 문제 해설 특강
- 2019학년도 합격 전략 설명회 진행 중
- 2018년 1-2월 및 연간 패키지 개설 예정
- 1-2월 강의 사전 예약 할인 기간: 2017년 12월 22일(금) 10시 ~ 30일(토) 13시

김인식 이선화 전대현 김경정 오현준 권자수

PMG 박문각임용 www.pmg.co.kr  
www.pmg.co.kr  
학원 021814-2030 온라인 0213489-9500

## 보건교사. 이래서 좋다!

임용고시 나이제한 무 / 모집인원 증가추세

보건 교사의 꿈!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임수진 전공보건

임기비용이 높은 보건임용, 체계적인 학습/마음을 통한 임가능력 향상! 초시생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합니다.

친단기 합격 솔루션 제안! 전공보건 임수진교수 + 교육학 명 강사진

2019학년도 대비 | 서울 | 12/16(토) 오전 10시  
보건임용 설명회 | 대구 | 12/21(목) 오전 10시

KG 패스원 교원임용 [희소/샘플러스]  
ssamplus.com | 문의 1544-0678

## 커넥츠 임용단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23년의 합격 노하우

## 전공보건 신희원

교수님 약력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前) 서울보건 임용수석합격  
前) 서울초등보건교사  
매년 전지역 합격자 다수배출

2019 보건임용 합격전략 설명회 | 시간 | 12/16(토) | 장소 | 노랑진 임용단기학원

임용단기 프리패스 | 이로부터 모의고사까지 무제한 반복수강!

커넥츠 임용단기  
문의 | 1661-8560 | imyong.connects.com